

나지완, 지금 필요한 건 시원한 ‘한 방’



올 시즌 71경기 타율 0.235
부진·사구 후유증에 2차례 2군행
복귀 뒤 출루율 높이며 기대감
‘7위 추락 KIA’ 반전의 키맨 돼야

나지완의 반전이 필요한 KIA 타이거즈의 여름이다. 마음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KIA의 2018시즌이다. 나지완에게도 올 시즌은 답답함이 앞선다. 지난 31일 경기 전까지 나지완은 71경기에서 나와 타율 0.235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타석에서의 침착하지 못한 승부가 아쉬웠다. 올 시즌 25개의 볼넷을 골라내는데 그친 나지완은 삼진으로 57차례나 덕아웃으로 물러났다. 대신 타이거즈의 독보적인 사(死)구 1위답게 나지완은 올 시즌에도 15차례나 공에 맞으면서 걸어 나갔다. 19개의 SK 최정에 이어 전체 2위다.

타석수로 따지면 나지완(245타석)이 최정(370타석)에 앞선다. 원치 않은 사구 선두 질주 속 나지완은 부진과 사구 후유증으로 벌써 두 차례나 2군에 다녀왔다. 지난 시즌 팀의 다이내마이트 타선의 한 축을 담당해줬던 나지완까지 제 몫을 못 해주면서 KIA는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개인적인 자존심 회복이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팀의 반전을 위해서도 나지완의 활약이 필요하다. 희망적인 부분은 있다. 올 시즌 꾸준한 활약을 해주지 못했지만 12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17개의 바나나-안치홍-최형우, 13개의 이범호에 이어 팀 내 홈런 5위에 이름을 올려놨다. 타점 역시 안치홍, 최형우, 김주찬, 바나나에 이어 5위다. 대타 타율도 0.400으로 높다. 무엇보다 최근 나지완 특유의 눈야구가 살아나는 게 반갑다. 지난 7월 21일 1군에 복귀한 뒤 세 경기에서 안타 없이 2사사구 3삼진만 기록했던 나지완은 지난 25일 한화전에서 복귀 후 첫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 안타를 시작으로 나지완은 5경기에서 6타수 2안타 6볼넷 2삼진을 기록하고 있다. 몸에 맞는 볼로 한 차례 걸어 나가기도 했다. 나지완은 “처음 1군에 돌아왔을 때보다 감은 좋다. 공을 골라내고 있는 부분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했다. 나지완의 출루율이 높아지면 KIA의 공세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여기에 나지완은 상대 배터리를 압박할 수 있는 한방도 가지고 있다. 전반기 마운드의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팻딘이 후반기 반전에 성공한 것처럼 나지완도 극적인 후반기를 꿈꾼다. 나지완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언제 역할이 주어질지 몰라서 경기 내내 긴장하고 있다. 꾸준하게 활약을 하면서 팀 승리에 역할을 하도록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나지완이 전반기 부진을 털어내고 후반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천재는 타고난다니까 = 나이를 잊은 임창용의 뜨거운 여름이다. 임창용은 후반기 선발로 변신해 두 경기를 소화했다. 선발 첫 등판이었던 7월 20일 kt에서 4.1이닝을 소화했던 임창용은 26일 한화전에서 4이닝을 던졌다. 첫 선발 등판에서 74개의 공을 던졌던 임창용은 앞선 경기에서는 87개까지 투구수를 올렸다. 선발로 많은 공을 던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에 대해 임창용은 “천재는 타고난다니까”라고 웃으며 “문제없다”고 언급했다. 타고난 몸과 남다른 자기 관리로 후배들 못지않은 몸상태를 보이는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임창용은 “나는 더 많은 공을 던지고 싶다. 그런데 내 육신만 챙기면서 많은 공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보다는 팀 승리에 맞춰 조절을 해야 한다. 다음에는 팀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투구수 올린 임창용 “천재는 타고난다니까”

▲내 탓입니다 = “지난번에 만났던 것과는 달랐다. 다들 잘 치더라”면서도 “내 탓입니다”라고 아쉬워한 유승철. KIA는 지난 주말 7월 무서운 질주를 펼친 삼성을 대구에서 만나 ‘싸움’이 3연패를 당했다. 유승철은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 팻딘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와 1이닝 3피안타(2피홈런) 1탈삼진 3실점의 아쉬운 성적을 냈다. 러프에 이어 구자욱에게 연달아 홈런을 맞은 유승철은 “그 경기 전까지 피홈런이 두 개였는데, 한 경기에 두 개나 맞았다. 생애 첫 멀티피홈런이다”며 “너무 자신 있게 들어갔다. 내 탓이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잘 막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모르고 할 때가 좋았죠 = 황인준은 올 시즌 처음 1군에 데뷔한 대졸 4년 차 ‘중고 신인’이다.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꾸준하게 볼넷 한 자리를 차지

하고 있는 그는 올 시즌 두 차례 ‘임시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기도 했다. 6월 12일 헥타가 장염에 걸리면서 경기 전 급하게 선발 역할을 맡았고, 7월 25일에는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간 임기영을 대신해 가장 먼저 출격했다. 선발로 나온 두 경기에서 황인준의 역할은 5이닝에 그쳤지만 팀은 이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왔다. 특히 SK전에서는 ‘괴물’ 김광현을 제압하고 승리를 가져왔다. 황인준은 “내 몫은 완벽하게 못 했지만 팀이 승리를 해서 좋다”며 웃었다. 또 “처음 선발 역할을 맡았을 때는 경기 전에 갑자기 결정돼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모르고 하니 오�히려 좋았는데, 앞선 한화전에서는 생각이 너무 많았다. 수 싸움에서 졌다. 매 경기 아쉬움은 남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돌아봤다. /김여울 기자 wool@



추, 멀티홈런 ‘왕왕’

텍사스 이적 첫...한 시즌 최다홈런 -2

‘추추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텍사스 이적 후 첫 멀티홈런을 터트리며 팀의 4연승을 이끌었다. 추신수는 지난 31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 2개를 포함해 5타수 2안타 4타점 2득점을 올렸다. 추신수가 한 경기 2개 이상의 홈런을 터트린 것은 이번이 개인 통산 10번째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이던 2008년 9월 20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전에서 개인 통산 첫 멀티홈런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2009년 한 차례, 2010년 네 차례나 한 경기 2개 이상의 홈런을 몰아쳤다. 2012년 한 차례 하루 2개 홈런을 터뜨린 추신수는 신시내티 레즈로 이적한 2013년에도 두 차례 멀티홈런을 만들어내며 폭발력을 과시했다. 추신수는 신시내티 소속이던 2013년 5월 16일 마이애미 말린스전 이후 처음이자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 첫 멀티홈런을 작성했다. 추신수의 한 경기 최다 홈런 기록은 2010년 9월 18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서 때린 3개다. 추신수는 이날 19. 20호 홈런을 연이어 쳐내며 2년 연속 20홈런 고지를 밟았다. 7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20홈런을 채운 추신수는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홈런(22개)에도 2개 차로 바짝 다가섰다. 시즌 타점은 51개. 추신수는 0-1로 끌려가던 5회초 2사 1·2루에서 애리조나 좌완 선발 로비 레이를 상대로 2구째 93.5마일(약 150km)짜리 바깥쪽 포심 패스트볼을 밀어쳐 역전 3점포를 쏘아 올렸다. 7-5로 앞선 8회초 1사에서 맞은 다섯 번째 타석에서 또 하나의 홈런을 추가했다. 추신수는 1회에서 애리조나의 우완 투수 맷 안드레시의 2구째 체인지업을 통타해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연결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활약에 힘입어 9-5로 승리하고 4연승을 질주했다. /연합뉴스

수중 발레리나 콜롬비아 대표팀이 31일 오전(한국시각) 콜롬비아 바랑키아의 아쿠아틱 콤플렉스에서 열린 중앙아메리카·캐리비안 게임 싱크로나이즈드 스우밍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